

## 한국 경호경비학의 연구경향 분석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기고논문(1997-2007)을 중심으로

### Positive Analysis about Study-trend for a Field of the Korea Security : Papers Contributed(1997~2007) to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centered

안 황 권\* · 김 상 진\*\*

<목 차>

I. 서 론	IV. 분석결과의 요약 및 과제
II. 분석방법과 분류체계	V. 결 론
III. 경호경비학의 연구경향 분석	

###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경호경비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에 게재된 총 14권 22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특성별 경향(성별 분포, 학위별 분포, 소속기관과 지역별 분포, 논문편당 참여인원분포), 둘째, 연구영역별 연구경향(연구비 지원여부, 연구주제의 변화), 셋째, 연구방법별 연구경향(연도별 연구방법, 연구주제별 연구방법, 연도별 통계 분석 기법)으로 세분화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경호경비학회지』의 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참여, 골고루 분포된 지역별 연구 참여, 다양한 분석방법의 시도 등으로 인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경향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면 성별과 소속기관 그리고 단독연구의 지나친 편중, 연구비 지원에 대한 취약성, 연구 분야의 편중 그리고 산업계와 엇갈리고 있는 연구방향 등은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방법에서는 문헌연구나 현상 기술적 사례분석과 같은 일반적인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서 핵심결과 도출이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복적이고 형식적인 제언 등에서 그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경호경비학이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산업계의 발전 방향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층 더 세련된 통계기법의 활용과 적절한 연구방법을 구사하도록 하며, 동시에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한국경호경비학회, 연구자의 특성, 연구경향, 연구영역, 연구방법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교수(제1저자)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강사(공동저자)

## I. 서 론

한국에 현대적의미의 경비업이 도입 된지 55년이 되었고, 경호경비학이 소개되어 본격적으로 연구된 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동안 경호경비 분야의 연구는 다방면에서 활발한 기초연구와 함께 학문적 기틀을 다져왔다. 이렇게 활발한 연구 활동은 경호경비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중요한 바탕이 되었고,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시대적 배경에 따라 꼭 필요한 학문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호경비의 연구경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학문의 발전과정을 정리해보고 발전수준과 특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경호경비의 개념은 학제상으로 볼 때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경호경비학회가 1996년에 설립되면서 『한국경호경비학회지』의 연구 분야는 민간경비, 공경비, 범죄, 소방, 안전, 테러 등으로 확대해나가면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동안의 경호경비에 대한 연구경향을 분석한 사례가 미흡한 실정인어서 연구경향과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한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경호경비 관련분야의 연구경향을 정리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연구경향이 갖는 시사점은 무엇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흐름과 방향을 조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학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검증된 연구결과물을 분석하는 것이 학문의 성격과 경향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경호경비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한국경호경비학회지』의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경호경비학회가 2007년에 경호경비 관련학회에서 최초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후보로 선정되어 경호경비 관련분야에서는 대표적인 학술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즉, 이 논문들은 엄격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되는 학술 성과물이므로 그 게재논문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한국 경호경비학의 연구경향을 추적해 보고, 앞으로의 연구경향을 추론해 보는 데에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II. 분석방법과 분류체계

### 1.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그중에서 경호경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성과물을 모두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의 연구에 있어서 공간성과 시간적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연구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을 경우 연구자의 연구의욕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경호경비 관련 학자들의 학문공동체인 「한국경호경비학술지」에 게재된 22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 경호경비학 연구의 경향과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경호경비학회는 1996년에 설립된 이후 1997년 연구논문집인 『한국경호경비연구』를 창간하여 연 1회 발행해오다가 2004년부터 연 2회 발행하였다. 그리고 2007년 제13호부터는 연구논문집의 이름을 『한국경호경비학회지』로 개명하여 연 2회 발행하고 있다.

<표 2-1>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연혁

연 도	내 용
1996	한국경호경비학회 창립
1997	한국경호경비연구 창간호 발행(연1회 발행)
2004	연2회 발행
2006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2007	제13호부터 한국경호경비학회지로 개명

<표 2-2>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997~2007년까지 발간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총 14권에 수록된 225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2> 1997-2007년까지의 논문게재 편수

(단위 : 편, %)

연도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호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편수	15	12	14	15	17	14	16	16	10	18	12	14	25	27	225
	(6.6)	(5.3)	(6.2)	(6.6)	(8.0)	(6.2)	(7.1)	(7.1)	(4.4)	(8.0)	(5.3)	(6.2)	(11.0)	(12.0)	(100)

## 2. 연구영역의 분류

연구논문을 분석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대상별 영역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시 되며, 그 분류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게재된 논문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영역별로 군집화 하는 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데(이운호·김순석, 2006 : 274), 가장 어려운 점은 아직까지 경호경비학 분야의 학술용어가 통일되지 않았고,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용어에 대한 적절한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경호경비학에 대한 공식적인 학술영역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연구영역을 분류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1) 용어의 정리

경호경비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용어의 개념이 모호한 관계로 각 세부 연구 분야마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거나 그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호’와 ‘경비’의 개념과 범위조차 학자들 간에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경호’라고 하면, 주로 인적 대상을 보호하는 업종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고, ‘경비’는 시설 등 물적 대상을 보호하는 업종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본 학회의 ‘한국경호경비학회’라는 단체명에서 ‘경호’와 ‘경비’라고 구분한 것도 대상의 차이를 기준으로 개념상 구분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호’라는 용어를 인적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신변보호’라는 의미로 분류하였으며, ‘경비’는 물적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경비, 시설경비, 특수경비, 호송경비 등 경계나 방호적 개념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경호나 경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는 연구주제별 분류에서 ‘민간경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외에 안전·테러·소방은 분야별로 조금씩 유사한 성향이 있으나, 이론적·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연구영역이 이미 세분화되었으므로 그 개념을 용어 그대로 각각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영역의 분류

본 연구영역의 분류기준을 ① 민간경비 ② 공경비(경찰/대통령경호실) ③ 범죄학 ④ 소방학 ⑤ 안전학 ⑥ 테러학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에서 민간경비 분야는 업종별과 분야별로 구분하였다. 민간경비의 업종별구분은 신변보호·호송경비·기계경비·시설경비·특수경비 등 경비업법 제2조의 기준을 따라 5가지 업종별로 구분하였으

며, 연구 분야별로는 산업·경영·교육·법/제도·무도·역사·민간조사업·공사협력·기타 등으로 다시 세분화 하였다.

### 3. 연구방법의 분류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체계가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연구주제 및 이론체계와 함께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중 연구방법은 어떤 지식체계를 과학으로 규정 지우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주상현, 2002 : 41). 따라서 지난 11년간 경호경비학회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된 주요 분석방법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타 학문분야와의 비교를 위해서 비교론적 접근법(comparative approach)도 일부 병행되었다(이병렬·박기관, 2002 : 26).

본 연구에서는 연구논문의 연구방법을 질적 연구(해석적 접근)와 양적연구(실증적 접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주로 사례연구, 문헌연구, 역사적 연구, 관찰연구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후자는 설문이나 면접의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도출하거나 가설 또는 이론을 검증하는 추론통계 방법이다. 특히 실증적 분석을 사용한 논문의 경우 대상논문에 사용된 통계활용기법도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의 분석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자의 성별 ② 연구자의 학위별 분포 ③ 연구자의 소속과 지역별 분포 ④ 연구자의 논문편당 참여인원 ⑤ 연구비 지원여부 ⑥ 연구주제의 변화 ⑦ 연도별 연구방법의 변화 ⑧ 연구주제별 연구방법 ⑨ 연도별 통계분석 기법 등으로 구분되었다.

## III. 경호경비학의 연구경향 분석

연구자의 특성별 경향으로는 연구자의 성별, 연구자의 학위별 분포,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지역별 분포, 연구자의 논문편당 참여인원 등으로 구분하였고 연구영역별 연구경향으로는 연구비 지원여부, 연구주제의 변화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별 경향에서는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으로 구분하되 연도별 연구방법의 변화와 연구주제별 연구방법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양적 연구방법에 적용된 기법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통계분석 기법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자의 특성별 경향

분석대상은 총 225편이지만 한 저자가 복수의 논문을 게재한 경우가 있으므로 저자의 수는 논문의 수보다 다소 적다.

#### 1) 연구자의 성별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까지의 성별 분포는 전체논문 225편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216편이 남성연구자에 의해 발표되었고, 4.0%에 해당하는 9편만이 여성연구자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는 경호경비라는 학문적 특징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간 경호, 경비, 경찰, 범죄, 안전, 소방 등이 남성 중심적 직업으로 정착되었기에 연구자의 성별과 비율도 남성에 크게 치우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1> 게재논문 발표자의 성별비

(단위 : 편, %)

편수	성별	남자	여자	전체
	계		216(96.0)	9(4.0)

#### 2) 연구자의 학위별 분포

연구자 개개인의 전공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자의 학위명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별이 아닌 학위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의 학위별 분포는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의 논문이 39편(17.3%)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이학 박사학위 소지자의 논문이 30편(13.3%), 행정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24편(10.7%), 경찰학(범죄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12편(5.3%), 정치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11편(4.9%), 경호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7편(3.1%), 공학박사학위 소지자는 6편(2.7%), 범죄학 박사학위 소지자와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편(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경호경비학회의 연구를 법학·이학·행정학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전체의 93편(41.7%)으로 경호경비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연구자의 학위별 분포

(단위 : 편, %)

발행연도	경호학	범죄학	경찰학 (범죄학)	이학	행정학	법학	정치학	공학	교육학	기타	합계	
1997	1호	0(0)	0(0)	0(0)	1(6.7)	0(0)	6(40)	0(0)	0(0)	8(53.3)	15(100)	
1999	2호	0(0)	0(0)	0(0)	1(8.3)	1(8.3)	5(41.7)	0(0)	1(8.3)	0(0)	12(100)	
2000	3호	0(0)	0(0)	0(0)	0(0)	3(21.4)	6(42.9)	0(0)	0(0)	5(35.7)	14(100)	
2001	4호	0(0)	0(0)	0(0)	0(0)	2(13.3)	4(26.7)	1(6.7)	1(6.7)	0(0)	15(100)	
2002	5호	0(0)	0(0)	0(0)	2(11.8)	3(17.7)	3(17.7)	1(5.9)	1(5.9)	0(0)	17(100)	
2003	6호	0(0)	0(0)	1(7.1)	1(7.1)	2(14.3)	2(14.3)	0(0)	0(0)	0(0)	14(100)	
2004	7호	0(0)	0(0)	1(6.3)	2(12.5)	1(6.3)	2(12.5)	0(0)	0(0)	0(0)	16(100)	
	8호	0(0)	1(6.25)	0(0)	0(0)	4(25)	2(12.5)	1(6.25)	1(6.25)	1(6.25)	16(100)	
2005	9호	0(0)	0(0)	0(0)	1(10)	1(10)	1(10)	1(10)	1(10)	0(0)	10(100)	
	10호	1(5.6)	1(5.6)	1(5.6)	5(27.8)	3(16.7)	2(11.1)	1(5.6)	0(0)	0(0)	18(100)	
2006	11호	2(16.7)	0(0)	0(0)	3(25)	2(16.7)	1(8.3)	0(0)	1(8.3)	0(0)	12(100)	
	12호	0(0)	0(0)	0(0)	3(21.4)	1(7.1)	0(0)	2(14.3)	0(0)	0(0)	14(100)	
2007	13호	0(0)	0(0)	7(28)	5(20)	0(0)	3(12)	2(8)	0(0)	0(0)	25(100)	
	14호	4(14.8)	0(0)	2(7.4)	6(22.2)	1(3.7)	2(7.4)	2(7.4)	0(0)	1(3.7)	27(100)	
합계		7(3.1)	2(0.8)	12(5.3)	30(13.3)	24(10.7)	39(17.3)	11(4.9)	6(2.7)	2(0.8)	92(40.9)	225(100)

3) 연구자의 소속과 지역별 분포

① 연구자의 소속 기관별

연구자의 소속 기관별로는 <표 3-3>에서와 같이 전임교수, 외래강사, 연구원, 실무자, 대학원생,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전임교수가 전체 225편중에서 164편(72.9%)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호경비 관련 실무자가 21편(9.3%), 외래강사가 17편(7.6%), 대학원생이 10편(4.4%), 연구원이 7편(3.1%), 기타 6편(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호경비 분야의 주요 연구자들 중 전임교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무자의 연구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산·학간 연계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임교수 중심의 연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연구원이나 대학원생들의 저조한 참여는 향후 경호경비분야의 학문적 발전기여를 위한 과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lt;표 3-3&gt; 연구자의 소속별 분포

(단위 : 편, %)

구분	전임교수	외래강사	연구원	실무자	대학원생	기타	합계
논문 편수	1호	10(66.7)	0(0)	1(6.7)	2(13.3)	2(13.3)	15(100)
	2호	7(58.3)	3(20)	0(0)	2(16.6)	0(0)	12(100)
	3호	10(71.4)	0(0)	0(0)	1(7.1)	1(7.1)	14(100)
	4호	11(73.3)	3(20)	0(0)	1(6.7)	0(0)	15(100)
	5호	13(72.2)	2(11.1)	2(11.1)	0(0)	0(0)	17(100)
	6호	12(85.7)	1(7.1)	0(0)	1(7.1)	0(0)	14(100)
	7호	12(75)	1(6.25)	0(0)	3(18.8)	0(0)	16(100)
	8호	14(87.6)	1(6.3)	0(0)	0(0)	1(6.3)	16(100)
	9호	9(90)	0(0)	0(0)	1(10)	0(0)	10(100)
	10호	16(88.9)	0(0)	1(5.6)	1(5.6)	0(0)	18(100)
	11호	9(75)	1(8.3)	0(0)	2(16.7)	0(0)	12(100)
	12호	9(64.3)	1(7.1)	0(0)	1(7.1)	3(21.4)	14(100)
	13호	17(68)	1(4)	3(0)	2(12)	1(4)	25(100)
	14호	15(55.5)	3(11.1)	0(0)	4(14.8)	2(7.4)	27(100)
합계	164(72.9)	17(7.6)	7(3.1)	21(9.3)	10(4.4)	6(2.7)	225(100)

## ② 연구자의 지역별 분포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의 논문을 지역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수도권지역에서 131편(58%)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94편(41.8%)의 논문이 게재되어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에 비해 게재율이 16.2%가 더 높았다. 그 이유는 경호·경찰 관련학과 대학원과 유관 연구원 등이 수도권에 소재해 있어서 연구 인력이 지방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간초기인 1997-1998년에는 게재 논문의 2배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었으나, 점차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논문 게재율이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지역 중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연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고,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충청과 영남지역에서 게재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 연도별 연구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 편, %)

연도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강원	충청	영남	전라	제주 도	국외		소계
1997	1호	7(46.7)	2(13.3)	1(6.6)	10(66.7)	2(13.3)	2(13.3)	1(6.6)	0(0)	0(0)	0(0)	5(33.3)	15(100)
1999	2호	6(50)	3(25)	0(0)	9(75)	0(0)	1(8.3)	2(16.7)	0(0)	0(0)	0(0)	3(25)	12(100)
2000	3호	4(28.6)	2(14.3)	0(0)	6(42.9)	0(0)	3(21.4)	5(35.7)	0(0)	0(0)	0(0)	8(57.1)	14(100)
2001	4호	3(20)	2(13.3)	0(0)	5(33.3)	0(0)	3(20)	6(40)	1(6.7)	0(0)	0(0)	10(66.7)	15(100)
2002	5호	4(22.2)	3(16.7)	0(0)	7(38.9)	1(5.6)	4(22.2)	4(22.2)	0(0)	0(0)	1(11.1)	10(61.1)	17(100)
2003	6호	1(7.1)	6(42.9)	0(0)	7(50)	0(0)	3(21.4)	3(21.4)	1(7.2)	0(0)	0(0)	7(50)	14(100)
2004	7호	4(25)	7(43.7)	0(0)	11(68.7)	0(0)	3(18.8)	1(6.25)	1(6.25)	0(0)	0(0)	5(31.3)	16(100)
	8호	2(12.5)	7(43.7)	0(0)	9(56.3)	0(0)	5(31.2)	2(12.5)	0(0)	0(0)	0(0)	7(43.7)	16(100)
2005	9호	1(10)	4(40)	0(0)	5(50)	0(0)	3(30)	2(20)	0(0)	0(0)	0(0)	5(50)	10(100)
	10호	3(16.6)	9(50)	1(5.6)	13(72.2)	0(0)	3(16.6)	1(5.6)	1(5.6)	0(0)	0(0)	5(27.8)	18(100)
2006	11호	2(16.7)	7(58.3)	0(0)	9(75)	0(0)	2(16.7)	1(8.3)	0(0)	0(0)	0(0)	3(25)	12(100)
	12호	0(0)	6(42.9)	0(0)	6(42.9)	0(0)	2(14.3)	5(35.7)	1(7.1)	0(0)	0(0)	8(57.1)	14(100)
2007	13호	8(32)	6(24)	1(4)	15(60)	0(0)	5(20)	5(20)	0(0)	0(0)	0(0)	10(40)	25(100)
	14호	8(30)	9(33.3)	2(7.4)	19(70.4)	0(0)	3(11.1)	4(14.8)	0(0)	1(3.7)	0(0)	8(29.6)	27(100)
합계		53(23.6)	73(32.4)	5(2.2)	131(58)	3(1.3)	42(18.7)	42(18.7)	5(2.2)	1(0.4)	1(0.4)	94(41.8)	225 (100)

4) 연구자의 논문편당 참여인원

논문 한 편당 연구인원을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총 225편중에서 151편(67.1%)이 단독으로 연구하여 게재하였으며, 2인 공동연구가 52편(23.1%), 3인 이상 공동연구는 22편(9.7%)이었다. 이러한 경향을 비추어 볼 때, 경호경비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의 협업성이나 학자 및 실무자의 학문적 교류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유관 분야에서 연구자 논문참여 형태를 비교해 보면, 한국교정연구 경향을 분석한 윤옥경(2004 : 77)의 연구에서는 전체 207편의 논문 중에서 소속별로 전임교수가 70%(73편)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무가와 연구자의 학문적 교류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 연구경향을 분석한 이병렬·박기관(2002 : 32-33)의 연구에서는 전체 342편의 논문 중에서 소속별로는 전임교수가 75.7%(259편)를 차지했고, 참여인원별로는, 단독연구가 76.6%(262편)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지방자치학 연구경향에서도 학자들과 지방정치가 및 실무가의 학문적 교류가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한국공안행정학 연구경향을 분석한 이윤호·김순석(2006 : 279-280)의 연구에서는 전체 274편의 논문 중에서 소속별 중에서는 전임교수가 68.6%(188편)를 차지하였고, 참여인원별로는 단독연구가 95.2%(261편)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찰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김상호(2007 : 78-84)의 연구에서도 전체 108편의 논문 중에서 소속별로는 전임교수가 73.6%(162편)이고 단독연구가 71.3%(77편)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실용 학문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학자들 간 혹은 학자 또는 실무자와의 연계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유관 분야의 연구경향은 본 연구대상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5> 연도별 논문편당 참여인원

(단위 : 편, %)

발행연도 연구인원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인	14 (93.3)	11 (91.7)	13 (92.9)	13 (86.7)	13 (76.5)	12 (85.7)	10 (62.5)	14 (87.5)	6 (60)	9 (50)	6 (50)	5 (35.7)	13 (52)	12 (44.4)	151 (67.1)
2인	1 (6.7)	0 (0)	1 (7.1)	2 (13.3)	4 (23.5)	2 (14.3)	5 (31.2)	2 (12.5)	4 (40)	5 (27.8)	3 (25)	5 (35.7)	7 (28)	11 (41)	52 (23.1)
3인	0 (0)	1 (8.3)	0 (0)	0 (0)	0 (0)	0 (0)	1 (6.3)	0 (0)	0 (0)	4 (22.2)	3 (25)	4 (28.6)	5 (20)	4 (14.6)	22 (9.7)
이상															
합계	15 (100)	12 (100)	14 (100)	15 (100)	17 (100)	14 (100)	16 (100)	16 (100)	10 (100)	18 (100)	12 (100)	14 (100)	25 (100)	27 (100)	225 (100)

## 2. 연구영역별 연구경향

연구영역별 연구경향에서는 연도별 게재논문의 연구비 지원여부와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에서는 민간경비를 다시 업종별 논문게재분포와 연구 분야별 논문게재 분포로 이분화 하여 재분석 하였다.

### 1) 연구비 지원여부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25편의 논문 중 208편(92.4%)이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이고, 17편(7.6%)이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으로 나타나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이 매우 적었다. 그 이유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결과를 대부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경호경비학회지는 비교적 늦은 2006년에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표 3-6> 연도별 게재논문의 연구비 지원여부

(단위 : 편, %)

발행 연도 연구별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연구비 지원논문	1 (6.7)	2 (16.7)	0(0)	2 (13.3)	1 (5.8)	1 (7.1)	1 (6.3)	0 (0)	0 (0)	0 (0)	0 (0)	1 (7.1)	4 (16)	4 (14.8)	17 (7.6)
연구비 비지원논문	14 (93.3)	10 (83.3)	14 (100)	13 (86.7)	16 (94.1)	13 (92.9)	15 (93.7)	16 (100)	10 (100)	18 (100)	12 (100)	13 (92.9)	21 (84)	23 (85.2)	208 (92.4)
합계	15 (100)	12 (100)	14 (100)	15 (100)	17 (100)	14 (100)	16 (100)	16 (100)	10 (100)	18 (100)	12 (100)	14 (100)	25 (100)	27 (100)	225 (100)

2) 연구주제의 변화

연구주제별 분석을 위해서 먼저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 추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주제별 분포에서 다른 주제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재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영역은 <표 3-7>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민간경비·공경비(경찰/경호실)·범죄·소방·안전·테러·기타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공사 협력의

<표 3-7>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

(단위 : 편, %)

발행연도	민간경비	공경비 (경찰/경호실)	범죄	소방	안전	테러	기타	계
1997	1호 7(40)	3(20)	2(13.3)	1(6.7)	1(6.7)	1(6.7)	0(0)	15(100)
1999	2호 3(25)	0(0)	4(33.3)	1(8.3)	3(25)	1(8.3)	0(0)	12(100)
2000	3호 2(14.3)	5(35.7)	3(21.4)	0(0)	2(14.3)	2(14.3)	0(0)	14(100)
2001	4호 3(26.7)	5(33.3)	3(20)	0(0)	4(26.7)	0(0)	0(0)	15(100)
2002	5호 5(27.8)	2(11.1)	2(11.1)	1(5.9)	2(11.1)	5(27.8)	0(0)	17(100)
2003	6호 9(64.3)	2(14.3)	1(7.1)	0(0)	1(7.1)	1(7.1)	0(0)	14(100)
2004	7호 10(62.5)	1(6.25)	3(18.8)	0(0)	0(0)	2(12.5)	0(0)	16(100)
	8호 4(25)	5(31.3)	4(25)	0(0)	3(18.8)	0(0)	0(0)	16(100)
2005	9호 5(50)	0(0)	3(30)	0(0)	0(0)	2(20)	0(0)	10(100)
	10호 10(55.6)	3(16.7)	2(11.1)	0(0)	2(11.1)	1(5.6)	0(0)	18(100)
2006	11호 9(75)	1(8.3)	0(0)	0(0)	1(8.3)	1(8.3)	0(0)	12(100)
	12호 12(85.7)	0(0)	1(7.1)	0(0)	0(0)	1(7.1)	0(0)	14(100)
2007	13호 10(40)	3(12)	4(16)	0(0)	1(4)	3(12)	4(16)	25(100)
	14호 14(51.9)	3(11.1)	1(3.7)	0(0)	3(11.1)	6(22.2)	0(0)	27(100)
합계	103(45.7)	33(14.6)	33(14.6)	3(1.3)	23(10.2)	26(11.6)	4(1.8)	225(100)

경우 민간경비로 분류하였다.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 225편의 논문 중 민간경비 분야가 103편(45.7%)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공경비(경찰/경호실)와 범죄학 분야가 각각 33편(14.6%), 테러학 분야가 26편(11.6%)이고, 안전학 분야가 23편(10.2%), 소방학 분야가 3편(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재난이나 화재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방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소방학과 안전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다소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소방학의 경우 2005-2007년까지 관련논문이 전혀 게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소방학 분야가 민간경비와 관련성이 약간 떨어진 면이 있고 또 재난·방재관련 전문학술지가 2~3개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 가장 많은 논문의 주제로 선정되고 있는 분야가 225편의 논문 중에서 민간경비 분야가 103편으로 45.7%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민간경비를 다시 민간경비 업종별 논문게재 분포도와 연구 분야별 분포도로 이분화 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 ① 민간경비 업종별 논문게재 분포

민간경비 업종별 논문게재 분포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비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변보호·호송경비·기계경비·시설경비·특수경비 5가지 업종으로 구분하였으며, 분류는 업종자체를 연구하기 위해 접근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표 3-8>과 같이 분석하였다.

민간경비 관련 논문의 총 103편중에서 업종자체를 연구한 논문은 불과 17편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논문 분포도를 살펴보면, 신변보호가 5편(36%), 기계경비가 4편(29), 특수경비가 3편(21%), 호송경비와 시설경비가 각 1편(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경비에 대한 연구 성향이 업종별로 접근하기 보다는 <표 3-9>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민간경비와 관련된 경영·산업·법·제도 등과 같은 학문적 특성에 따른 주제로 대부분의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업종별 연구에서 시설경비업에 대한 연구가 1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간경비 산업계에서 2006년 12월 현재, 시설경비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업체수가 81.3%(2,549개), 경비원 수는 84.9%(108,311명)로(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산업계에서는 이를 소위 ‘현금을 몰고 다니는 소(Cash Cow)’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나라에서 시장성이 가장 큰 업종이다. 그리고 시설경비가 모든 경비업무의 기본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경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관련 서적도 발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산업계에 대한 학계의 연구방향이 현실성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기계경비

업은 시설 내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구분에 있어서 연구대상 분류가 어느 정도 중복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제상 업무별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분류체계가 재조정되어야 한다.

<표 3-8> 민간경비 업종별 논문게재 분포

(단위 : 편, %)

발행연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시설경비	특수경비	계	
1997	1호	2(67)	1(33)	0(0)	0(0)	0(0)	3(100)
1999	2호	0(0)	0(0)	0(0)	0(0)	0(0)	0(0)
2000	3호	1(100)	0(0)	0(0)	0(0)	0(0)	1(100)
2001	4호	0(0)	0(0)	1(100)	0(0)	0(0)	1(100)
2002	5호	0(0)	0(0)	0(0)	0(0)	0(0)	0(0)
2003	6호	1(33.3)	0(0)	1(33.3)	0(0)	1(33.3)	3(100)
2004	7호	0(0)	0(0)	1(50)	0(0)	1(50)	2(100)
	8호	0(0)	0(0)	1(100)	0(0)	0(0)	1(100)
2005	9호	0(0)	0(0)	0(0)	0(0)	0(0)	0(0)
	10호	0(0)	0(0)	0(0)	0(0)	0(0)	0(0)
2006	11호	0(0)	0(0)	0(0)	0(0)	0(0)	0(0)
	12호	0(0)	0(0)	0(0)	0(0)	0(0)	0(0)
2007	13호	0(0)	0(0)	0(0)	0(0)	1(100)	1(100)
	14호	1(50)	0(0)	0(0)	1(50)	0(0)	2(100)
합계		5(36)	1(7)	4(29)	1(7)	3(21)	14(100)

② 민간경비 연구 분야별 논문게재 분포

민간경비 연구 분야별 분포는 민간경비 관련 논문 총 103편중에서 89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제별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표 3-9>와 같이 각 학문분야를 연도별로 산업·경영·교육·법/제도·무도·역사·공/사협력·민간조사업·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류상 산업과 경영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산업은 민간경비업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본 큰 틀 이며, 경영은 산업의 유기적 생산체인 경비업체의 조직과 운영과 같은 부분적인 맥락에서 구분된 것이다.

총 89개의 논문 중에서 연구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경영분야가 26편(29%), 산업분야가 20편(22%), 교육 분야가 15편(17%), 법·제도 분야가 8편(9%), 공·사협력 분야가 7편(8%), 무도 분야가 5편(6%), 역사 분야와 민간조사업 분야가 각각 3편(3%), 기타 논문 2편(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경영분야와 산업분야가 전체 중 46편

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논문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분야와 교육 분야는 연도별로 꾸준히 게재되었으나 경영분야 논문은 2005년부터 매우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는 갈수록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규모의 팽창으로 경영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민간경비 종사자의 인적 자질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교육에 대한 연구도 경영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 민간경비 연구 분야별 논문게재 분포

(단위: 편, %)

발행연도	산업	경영	교육	법·제도	무도	역사	공·사협력	민간조사업	기타	계
1997	1호 3(75)	0(0)	0(0)	1(25)	0(0)	0(0)	0(0)	0(0)	0(0)	4(100)
1999	2호 2(67)	0(0)	0(0)	0(0)	1(33)	0(0)	0(0)	0(0)	0(0)	3(100)
2000	3호 0(0)	0(0)	1(100)	0(0)	0(0)	0(0)	0(0)	0(0)	0(0)	1(100)
2001	4호 0(0)	0(0)	0(0)	0(0)	1(50)	1(50)	0(0)	0(0)	0(0)	2(100)
2002	5호 1(20)	0(0)	3(60)	1(20)	0(0)	0(0)	0(0)	0(0)	0(0)	5(100)
2003	6호 2(33)	0(0)	1(17)	0(0)	2(33)	0(0)	1(17)	0(0)	0(0)	6(100)
2004	7호 3(38)	0(0)	1(13)	2(25)	1(13)	0(0)	1(13)	0(0)	0(0)	8(100)
	8호 1(33)	1(33)	1(33)	0(0)	0(0)	0(0)	0(0)	0(0)	0(0)	3(100)
2005	9호 1(20)	2(40)	2(40)	0(0)	0(0)	0(0)	0(0)	0(0)	0(0)	5(100)
	10호 1(10)	7(70)	0(0)	0(0)	0(0)	0(0)	2(20)	0(0)	0(0)	10(100)
2006	11호 1(11)	3(33)	1(11)	2(22)	0(0)	0(0)	2(2)	0(0)	0(0)	9(100)
	12호 2(17)	5(42)	2(17)	0(0)	0(0)	1(8)	1(8)	1(8)	0(0)	12(100)
2007	13호 3(33)	3(33)	2(22)	1(11)	0(0)	0(0)	0(0)	0(0)	0(0)	9(100)
	14호 0(0)	5(42)	1(8)	1(8)	0(0)	1(8)	0(0)	2(17)	2(17)	12(100)
합계	20(22)	26(29)	15(17)	8(9)	5(6)	3(3)	7(8)	3(3)	2(2)	89(100)

### 3. 연구방법의 경향

#### 1) 연도별 연구방법

연구방법별 연구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양적연구(실증적)와 질적연구(해석적)로 이분화 하여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2007년까지 경호경비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양적연구가 39편(17.3%), 질적연구가 186편(83.7%)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7-2001년까지는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논문이 전혀 없었으나 2002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서 2005년부터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경호경비학의 발전기와 관련하여,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10> 연도별 연구방법의 변화

(단위 : 편, %)

구분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	14	
양적연구	0 (0)	0 (0)	0 (0)	0 (0)	2 (11.8)	2 (14.3)	1 (6.3)	1 (6.3)	2 (20)	8 (44.4)	3 (25)	6 (42.9)	5 (20)	9 (33.3)	39 (17.3)
질적연구	15 (100)	12 (100)	14 (100)	15 (100)	15 (88.2)	12 (85.7)	15 (93.7)	15 (93.7)	8 (80)	10 (55.6)	9 (75)	8 (57.1)	20 (80)	18 (66.7)	186 (83.7)
합계	15 (100)	12 (100)	14 (100)	15 (100)	17 (100)	14 (100)	16 (100)	16 (100)	10 (100)	18 (100)	12 (100)	14 (100)	25 (100)	27 (100)	225 (100)

2) 연구주제별 연구방법

연구 주제별 연구방법의 경향은 <표 3-11>과 같다. 즉, 연구방법에 따라 민간경비·공경비·범죄학 분야와 소방학·안전학·테러학 분야로 구분된다.

민간경비·공경비·범죄학 분야에서는, 질적 연구가 134편(59.6%), 양적 연구가 35편(15.6%)으로 연구방법이 적절히 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소방학·안전학·테러학 분야에서는 안전학에서 양적연구 1편(0.04%)을 제외하고는 51편(22.7%)이 모두 질적 연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문적 성향에서 비롯된다. 민간경비·공경비·범죄학 분야에서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사회현상의 변화가 현실에서 민감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공통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도에서 기인된 것이라 판단되며, 소방학·안전학·테러학 분야는 학문의 특성상 사회의 특수한 사건이나 현상을 다차원적 시각으로 현상 해석적 그리고 근거 이론적 입장의 견지에서 증명하려는 성향이 높기 때문에 주로 질적 연구방법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11> 연구 주제별 연구방법의 차이

(단위 : 편, %)

구분	민간경비	공경비 (경찰/경호실)	범죄	소방	안전	테러	기타	계
양적연구	25(64.1)	5(12.8)	4(10.3)	0(0)	1(2.6)	0(0)	4(10.3)	39(17.3)
질적연구	78(41.9)	28(15.1)	29(15.6)	3(1.6)	22(11.8)	26(14)	0(100)	186(83.7)
합계	103(100)	33(100)	33(100)	3(100)	23(100)	26(100)	4(100)	225(100)

### 3) 연도별 통계분석 기법

양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논문은 총 40편이며, 통계기법의 경향은 <표 3-12>와 같다. 분석대상별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용된 통계기법은 총 173회에 해당하며 이중 기술통계가 36회(20.6%), 교차분석이 7회(4.0%), T-검증이 22회(12.6%), 분산분석이 22회(12.6%), 상관관계분석이 17회(9.7%), 요인분석이 20회(11.4%), 신뢰도분석이 22회(12.6%), 회귀분석이 27회(15.4%), 경로분석 및 AMOS 구조방정식이 2회(1.1%)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에 활용한 통계기법 경향은 기술통계, T-검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 다섯 가지 통계기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연도별로 통계기법 활용여부를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양적 연구가 전무했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기초 통계분석이 활용되면서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5년부터 통계기법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급통계의 활용도 더불어 증가하였다.

<표 3-12> 연도별 통계분석 기법

(단위 : 편, %)

통계기법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기술통계	0 (0)	0 (0)	0 (0)	0 (0)	1 (25)	2 (22.2)	1 (14.3)	0 (0)	2 (20)	7 (18.9)	3 (18.8)	6 (18.8)	5 (26.3)	9 (23.7)	36 (20.6)						
교차분석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	0 (0)	1 (6.3)	1 (3.1)	0 (0)	4 (10.5)	7 (4)						
T 검증	0 (0)	0 (0)	0 (0)	0 (0)	1 (25)	2 (22.2)	1 (14.3)	0 (0)	2 (20)	5 (13.5)	2 (12.5)	4 (12.5)	1 (5.3)	4 (10.5)	22 (12.6)						
분산분석	0 (0)	0 (0)	0 (0)	0 (0)	1 (25)	1 (11.1)	1 (14.3)	0 (0)	2 (20)	5 (13.5)	2 (12.5)	5 (15.6)	1 (5.3)	4 (10.5)	22 (12.6)						
상관관계	0 (0)	0 (0)	0 (0)	0 (0)	0 (0)	1 (11.1)	1 (14.3)	0 (0)	1 (10)	5 (13.5)	1 (6.3)	2 (6.3)	3 (15.8)	3 (7.9)	17 (9.7)						
요인분석	0 (0)	0 (0)	0 (0)	0 (0)	0 (0)	1 (11.1)	1 (14.3)	1 (33.3)	0 (0)	4 (10.8)	2 (12.5)	5 (15.6)	2 (10.5)	4 (10.5)	20 (11.4)						
신뢰도분석	0 (0)	0 (0)	0 (0)	0 (0)	0 (0)	1 (11.1)	1 (14.3)	1 (33.3)	0 (0)	4 (10.8)	2 (12.5)	5 (15.6)	4 (21.1)	4 (10.5)	22 (12.6)						
회귀분석	0 (0)	0 (0)	0 (0)	0 (0)	1 (25)	1 (11.1)	1 (14.3)	1 (33.3)	2 (20)	7 (18.9)	2 (12.5)	4 (12.5)	3 (15.8)	5 (13.2)	27 (15.4)						
경로분석 및 AMO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6.3)	0 (0)	0 (0)	1 (2.6)	2 (1.1)						
합계	0 (0)	0 (0)	0 (0)	0 (0)	4 (100)	9 (100)	7 (100)	3 (100)	10 (100)	37 (100)	16 (100)	32 (100)	19 (100)	38 (100)	175 (100)						



## IV. 분석결과의 요약 및 과제

### 1. 연구자의 특성별 연구경향

이 연구에서는 지난 11년간 한국경호경비학회의 학술지인 『한국경호경비학회지』에 게재된 총 225편의 논문을 내용분석 방법을 통하여 경호경비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내용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연구자의 특성과 연구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연구의 질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향후 발전가능성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운호·김순석, 2006 : 288).

연구자의 특성별 경향을 살펴보면 첫째, 성별 분포가 지나치게 남성위주로 편중되어 있었다. 둘째, 소속기관별 분포에서는 대부분이 전임교수들로 편중되어 있었다. 셋째, 논문편당 참여형태는 단독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넷째, 학위별 분포에서는 법학·이학·행정학 분야의 학자들이 경호경비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연구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법학·이학·행정학 분야의 남자 전임교수들의 단독 연구가 많다는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호경비의 발전을 위해서는 후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학회나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이 없이 학문적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넓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2. 연구영역별 연구경향

연구영역별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대상 총 225편을 연구영역별로 연구비 지원여부와 연구주제별로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비 지원을 살펴보면, 『한국경호경비학회지』의 경우 관련 학문분야에 비해 연구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부분이 교내 지원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호경비 분야는 민영화 추세를 지향하는 현 사회 구조 속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의 경제와 치안질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연구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경호경비 연구를 위한 재정 지원책의 마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연구자의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주제별 변화에 대한 결과에서는, 민간경비 분야에 가장 많은 논문이 편중되

어 있었다. 반면 인접학문인 공경비, 범죄, 소방, 안전, 테러, 기타 학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간경비가 내포하고 있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산업계와 매우 밀접해 있기 때문에 주요 학문으로 인식된 경향이 많으며, 학회지명과의 연관성도 전혀 배재할 수 없다. 그러나 민간경비 분야의 연구는 산업계의 현실성과 흐름에 대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채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통찰력으로 시각을 다소 제한하여 산업계의 흐름이나 현실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연구자의 관심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었기 때문이다. 즉, 경호경비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제한된 시각보다는 사회현실을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유사한 주제들에 대한 통합화 시도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 3. 연구방법별 연구경향

연구방법별 경향에서 '연도별 연구방법'과 '연구주제별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다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으로 이분화 하여 분석하였다.

경호경비의 학문 발달 초기에는 경호경비학에 관한 발전방안 및 법·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중심이 되었지만, 2002년을 기점으로 연구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호경비가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각도에서 인과관계를 측정하거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증적 연구가 시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주제별 연구방법의 차이에서 민간경비·공경비(경찰/경호실)·범죄학 분야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사회현상의 변화와 특수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변수간의 관계를 측정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소방·안전·테러 분야에서는 학문의 특성상 사례연구나 문헌연구 등의 연구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물 대다수가 구체적인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지 못한 채 자료 수집을 통한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며,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다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으며 공통적인 제언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제언을 피하고 더욱 명쾌한 의미해석과 분석을 통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참여관찰, 심층면접, 자세한 기술, 사례연구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호경비 분야의 연구경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 지난 11년간 『한국경호경비학회지』에 게재된 총 14권의 논문집 22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특성별 경향(성별분포, 학위별 분포, 지역별 분포, 소속기관 및 논문편당 참여 인원), 연구영역별 경향(연구비 지원여부, 연구영역별 연구경향), 연구방법별 경향(연도별 연구방법의 변화, 연구주제별 연구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경호경비학회지』의 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참여, 골고루 분포된 지역별 연구 참여, 다양한 분석방법의 시도 등으로 인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경향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면 성별과 소속기관 그리고 단독연구의 지나친 편중, 연구비 지원에 대한 취약성, 연구 분야의 편중 그리고 산업계와 엇갈리고 있는 연구방향 등은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 방법에서는 문헌연구나 현상 기술적 사례분석과 같은 일반화된 연구형태에 국한되어 있어서 핵심결과의 도출이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복적이고 일반화된 제언의 기술 등에서 그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경호경비학이 한 차원 더 진보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산업계의 발전 방향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 세련된 통계기법의 활용과 다양한 연구방법의 접근이 요구됨과 동시에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접 학문분야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경호경비학 연구수준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부족하거나 표출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 해석적인 측면에서 내용분석 방법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는데 우선, 『한국경호경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경호경비학 분야의 연구경향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의 영역을 분류하는 차원에 있어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으며 특히, 분석 대상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분류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논문 제목의 주요 표제어 또는 표제어의 중복 시 비중이 높은 표제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등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자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상호(2007). “경찰학 학술논문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28) : 78-84.
- 이윤희·김순석(2006). "한국공안행정학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 : 274-280.
- 이병렬·박기관(2002). “한국 지방자치학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 26.
- 윤옥경(2004). “<교정연구> 게재논문 분석을 통해 본 교정학의 연구영역과 연구동향”. 『교정연구』 22 : 85.
- 주상현(2002). “한국 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36(3) : 41.
- 한국경호안전신문(2007) 6. 1 : 1.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2\\_04.jsp](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2_04.jsp). 2008년 1월 8일 검색.

## ABSTRACT

### **Positive Analysis about Study-trend for a Field of the Korea Security : Papers Contributed(1997~2007) to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centered**

Ahn, Hwang-Kwon · Kim, Sang-Jin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225 papers included in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during the decade –from 1997 to 2007. This study was classified the study method qualitative

First, characteristic of researchers(distinction of sex, distinction of academic degree, regional distribution, one's position and regional distribution, participants per paper). Second, study trends classified by fields of study( where receiving research expenses support or not, change of study subject). Third, study trends classified by methods of study(study method by year, study method by study subject, statistical analysis by year) were subdivided.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some shortcomings on the research of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as compared with other fields. However, it shows advanced trends for example participation in different study field, evenly distributed regional study participation, variety trial of analysis method. Then again, the distinction of sex, one's position, too much emphasis on independence research, vulnerability about support of research expenses, emphasis on study fields and study trends wandering from industrial circles are getting deeper In study methods, generalized research form such as document study and phenomenon technical case study is limited so deduction of kernel result is not thoroughgoing enough as well as it shows the trend that limits to duplicate and generalized proposal technic.

Key Words :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Characteristic of Researchers, Study Trends, Study-fields, Study Method